파란 피 출혈을 즐기는 악인

(시편 139:1~24)

1.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 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5.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6.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파란 피 출혈을 즐기는 악인>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파란 피 출혈을 즐기는 악인'
영국에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다면 이탈리아에는 가에타노 도네체티(Gaetano Donizetti)의 람메르무어의 루치아(Lucia di Lammermoor)라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두 작품 모두 남녀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람메르무어의 루치아의 2장에서 "광란의 아리아"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벨칸토 창법으로써 무대의 상황이나 배역에 신경을 쓰지 않고 최대한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에 치중하는 창법입니다. 가수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기량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작품의 주인공 루치아는 원치 않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검을 가지고 결혼식장에서 신랑을 찔러 죽이게 됩니다. 하얀 웨딩드레스가 붉게 물들고 오른손에는 피 묻은 단검이 쥐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분가량 이 광란의 아리아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섬뜩한 상황과 극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벨칸토 창법이 어우러집니다. 말 그대로 미쳐야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한편 이 광란의 아리아를 특이한 용도로 사용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뤽 베송(Luc Besson) 감독의 제5원소(The Fifth Element)라는 영화입니다. 먼 미래의 지구 바깥에 파라다이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 낙원에서 외계인 오페라 디바가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광란의 아리아입니다. 악당들로 인해서 무대가 전쟁터가 되어버리고, 외계인 디바도 총알에 맞아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몸에서 파란 피가 흐릅니다.

인간의 몸에는 붉은 피가 흐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신앙인이라면 이 외계인의 몸에서나 흐를법한 파란 피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인간의 실존 모습이 그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한자로 생명(生命)은 생(生)을 명(命)받았음을 뜻합니다. 즉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삶의 이유를 이 파란 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을 때까지 매순간마다 해야 될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들을 이미 주의 책에 기록해놓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목에서 말하고자 하는 파란 피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라고 가족 개념을 혁신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혈육은 붉은 피로 이어진 혈육이 아니라 파란 피로 비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맺어진 혈육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파란 피는 나의 실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혈육으로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가족은 붉은 피의 혈육이 아니라 파란 피의 혈육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한다면 우리는 생애 최고의 순간을 바라서도 안 되고 향해 달려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생애 최고의 순간을 꿈꿉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생애 최고의 순간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생애 전체를 최고의 순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어느 한 순간이 최고점이었던 것이 아니라 남은 삶이 계속 최고점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삶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통령이나 장관이 되어야 할까요? 학교에서 1등하면 될까요? 명예나 인기를 얻어야 할까요? 파란 피를 흘리지 않으면 됩니다.

앞서 영화를 예로 들어 파란 피를 흘리는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성경적으로 비유하면 파란 피를 흘리는 자들이 이방인이고, 파란 피를 담고 사는 이들이 선민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기본적으로 외계인처럼 태어나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에서는 기쁨을 찾을 수 없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파란 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뜻을 갖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본문 다윗의 시는 마치 조직신학의 요약본을 보는 기분을 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관해서 사색하고 객관적으로 이론을 체계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개인적 체험을 근거로 하여 마치 조직신학 같은 통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하나님은 교리의 화석에 갇혀계신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계신 분으로써 소개되고 있습니

다.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사색의 결과가 아닌, 다윗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주관적 체험의 기록인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본시를 시편의 왕관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이 시에서 주로 하나님의 속성이 표현되는데 전지하심, 무소부재하심, 전능하신 창조주 되심, 공의로우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함이 이 시의 주제는 아닙니다. 이 시의 주제는 악인과 다윗 자신의 비교입니다. 이 차이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태도 즉 마음가짐에서 드러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들을 언급하며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악인들의 태도를 비교하며 그 차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속성인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살펴봅니다.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나를 아심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동을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아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장악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인지하심에 있어서 장악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뜻과 행위를 아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나대로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혹은 악한 자들이 근거 없이 다윗을 비난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다는 것을 자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말을 했던 것일까요? 다윗 자신이 원수들과 관계된 일에서는 떳떳할 수 있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전지하심 앞에서는 그 삶 전체가 떳떳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란 무엇일까요?
이 부분과 연관 지어 16~18절을 살펴봄으로써 질문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가 되어 하루도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 생애에 일어날 일들을 모조리 주의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잉태되기도 전에 이러한 일들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루하루 내게서 생각되어지고 말 되어지고 행위 되어져야 될 것들을 다 책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롭다고 하였습니다.

‘보배롭다’라는 말은 단순히 값지다는 것을 넘어 무겁게 여겨짐을 뜻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마치 바닷가의 모래보다 많아서 셀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책에 기록해두셨다니 하나님의 세밀하심이 지독할 정도입니다. 너무 세밀해서 속박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앞서 보았던 2절에서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책에 적어놓은 것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바람과는 다른 바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생각은 출혈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게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나를 살려두고 계십니다. 말 그대로 생을 명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결정된 파란 피가 흐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하늘의 뜻의 출혈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행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뜻의 출혈이 일어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출혈을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 악인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행위를 끝까지 고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서도 이러한 악인들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파란 피의 출혈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고 잠식시키는 일입니다. 참 기쁨과 행복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파란 피의 출혈이 일어나지 않고 내 몸에 있을 때에 최고의 생애는 이루어집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이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고의 생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권력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의 파란 피의 출혈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명은 잠식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못했다면 이제까지 삶은 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생명을 갉아먹는 시간이었고 멸망과 불행을 삼키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파란 피의 출혈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생각과 말과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의 출혈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말과 행위가 없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7~12절까지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언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실 때에만 하나님의 뜻의 파란 색 피의 출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

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위는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도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칭하였습니다.
다윗도 8~9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일컫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온 세상에 섭리의 손길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굳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의 장소를 한정한 이유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모셔 들이기 위해서는 땅에 대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땅에 대해서 죽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땅에서는 더 이상 기쁨거리를 찾지 않는 상태가 바로 죽음입니다. 땅에 대한 죽음이 하나님 사랑의 완전체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를 전제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내 안에 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실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던 모래알보다 많은 계획과 생각들이 내게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악인은 이 모래알보다 많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생각을 출혈시키는 자들입니다.
19절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체에서 붉은 피가 빠져나가면 생명이 사라지듯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계획하셨던 책 속의 파란 피를 쏟아버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출혈시키고, 동시에 자신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또한 출혈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악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보통 저녁 9시에 자고 새벽 3시에 일어나 말씀을 준비합니다.
어제는 조금 이른 8시 반쯤 잠이 들었는데 얼마 자지 못하고 10시쯤 일어났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 잤을까요? 제가 다시 잠들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으로서 칭기즈칸 알렉산더 소크라테스 공자님 등도 도달하지 못했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의 의미를 새삼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이고 최고의 자리에 도달했다는 것이 너무 흥분되고 믿어지지 않아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가 최고의 승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십자가 생활화를 해나가는 자리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의 자리보다도 훨씬 높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들이 저를 따라오려면 멀었습니다.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최고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졸업의 자리입니다. 반장을 해도 전교회장을 해도 졸업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교회장의 자리가 좋다고 해서 졸업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최고의 자리인 것입니다. 고등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세상을 졸업한 자리입니다. 세상에는 높은 자리들이 많이 있지만 세상을 졸업한 자의 자리보다 위대한 자리는 없습니다. 그 어떤 자리도 세상이라는 구역 안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여 세상을 졸업하였다면 더는 세상에서 바랄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미 최고의 자리를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에 십자가는 기적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산도 없고 명예도 없습니다. 대형교회 목회자들과 같은 위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부럽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 오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주님과 연합하는 것만이 저의 목적이고 삶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에까지 하나님 뜻의 푸른 피가 흐르고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꼭 세상에서 인기를 구가하는 것일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나타난 이름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 중에 만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의 믿음이 이들보다 못했기 때문에 유명해지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쓰임새가 달랐을 뿐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부자나 정치가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만이 최고의 일이기에 더 이상의 자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이 말씀 자체가 정답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일을 대신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잠들 수 없을 정도로 감격스러웠던 것은 세상을 졸업하는 최고의 자리, 최고의 성공이 공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더 원할 수 없는 최고의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것을 주실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베드로가 일으켰을 때에 사람들은 베드로를 숭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조금도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파란 피의 출혈을 막아줍니다. 그럼으로써 생애 전체를 최고로 만들어줍니다. 십자가라는 최고의 자리에 도달한 자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생애는 덤이고, 하

나님의 뜻에 의해 최고의 생애로 이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십자가 때문에 너무 기뻐서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파란 피의 출혈을 막고 최고의 자리에 도달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최고의 순간으로 이어지는 생애를 덤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